

채널 A, 에어리얼 MAM 도입

광화문-상암동 잇는 ‘품격 높은’ 방송 인프라 구축



“에어리얼 MAM을 도입해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NPS를
구축함으로써 상암동 DDMC와
광화문 DMC 간 소재 전송이 원활해지고
제작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

- 김한중 채널A 기술관리팀 팀장

■ 고객사 채널A

■ 업종 방송

■ 도입 배경

- ✓ 광화문 DMC 제작센터와 상암동 DDMC 제작 시스템 연계 필요
- ✓ 기존 아카이브 시스템의 개선과 체계적인 통합 관리 필요

■ 도입 효과

- ✓ 제작 센터 이전으로 원활한 제작 환경 구축
- ✓ 부조 제작 시스템의 최적화, 완전 자동화 실현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대표 김재호 www.ichannela.com)는 2011년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이다. 채널A는 방송의 품격을 높이고 다양한 시청자의 꿈과 공정한 여론을 담는 채널로서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상암동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DDMC)가 준공되면서 채널A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선진 방송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DMC)와 유기적으로 통합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최적의 NPS(네트워크 기반 제작 시스템)와 아카이브 시스템은 제마나이소프트의 에어리얼(Ariel) MAM으로 결정했다.

상암동-광화문 제작 시스템 유기적 연계 필요

채널A는 상암동 DDMC에 영상효과실, 종합편집실 그래픽제작실, 녹음실, 시 사회의실, 개인편집실과 부조정실을 두고 광화문 DMC의 주조정실과 연계해

운용하기로 했다. 상암동과 광화문을 잇는 유기적인 제작 환경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각 제작실 간의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전체 방송 제작 센터 시스템은 통합적으로 설계되고 구축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상암동 제작 CMS와 아카이브 CMS의 구축, 광화문 보도·제작 CMS의 연동과 BIS 등 방송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미디어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채널A가 요구한 것은, 방송 제작 소스와 마스터의 체계적인 관리, 방송 업무의 효율성 향상, 각종 멀티미디어 활용도의 극대화, 다양한 방송 전문 시스템 및 NLE 시스템과 연동, 타 시스템 간의 연동 등이었다.

제작용 NPS와 아카이브 MAM 기능 완비한 '에어리얼' 선정

제작용 NPS와 아카이브 MAM 기능이 모두 필요한 채널A가 주저 없이 선택한 솔루션은 제머나이소프트의 에어리얼 MAM이었다.

순수 자체 개발 솔루션인 에어리얼 MAM은 국내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 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제작 CMS와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이다. 또한 동적 구성이 가능한 워크플로우와 메타데이터를 비롯해 자체 트랜스코딩 기술과 미디어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채널A 시스템의 미비 사항을 보완할 수 있었다.

채널A는 제작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 멀티 채널 녹화 기능을 채용했다. 이를 위해 상암동 DDMC에 있는 부조정실에 멀티캠 녹화 테이커 시스템과 다채널 재생 테이커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멀티캠과 PGM 영상 소스의 녹화를 위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도입, 편리한 녹화 및 확인과 함께 프레임에 적합한 영상의 동기화를 최우선으로 설계했다.

■ 도입 솔루션

Ariel MAM

- Catalog
- Transfer Manager
- Transcoder
- Archive : using Front porch DIVArchive/Oracle Tape library
- Web Rough Cut Editor

Ingest

- Ariel V2 Marox based Ingest
- Ariel Centralized Ingest Control(CIC)

Studio Play out

- Ariel Studio Control with Imagine's Nexio Servers
- Ariel Audio File Ser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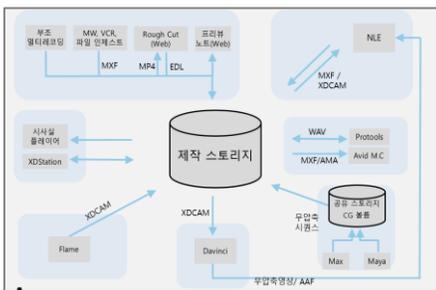
또한 영상 효과 품질 향상을 위해 영상 프리뷰 시스템은 원본 영상을 재생해 추가 메타데이터와 영상의 구간별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며, 작성 완료된 메타데이터를 CMS에 등록해 메타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에 따라 작업자는 작업할 프리뷰 대상 목록에 대한 정보와 리뷰 목록에 대한 메타데이터 확인이 가능하고 프리뷰 작업 진행 상태 확인도 할 수 있게 됐다.

활용도 높은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개선

이전에 채널A의 아카이브 시스템은 딥 아카이브 시스템(Deep Archive System)으로 구축됐다. 이 시스템은 보도·제작 CMS와 메타데이터가 분리돼 있어 서비스 활용도가 떨어지고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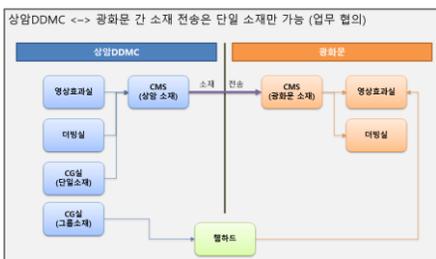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널A는 제머나이소프트의 에어리얼 MAM을 통해 기존 아카이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테이프 라이브러리와 구분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했다.

현재 채널A의 아카이브 시스템은 광화문-상암동의 제작 시스템과 연동해 송출된 영상을 자동으로 아카이브하고, 이를 계층적으로 관리하며, 아카이브와 리스토어 작업 시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개선됐다.



[워크플로우]

아카이브 시스템 리스토어는 상암동에서 광화문의 스토리지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으며, 보도 CMS의 영상을 상암동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저장할 스토리지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아카이브 시스템에 저장돼 있는 보도, 제작 소재 영상을 검색해 각각의 CMS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는 편리한 인터페이스도 완비했다.



[상암동 DDMC-광화문 간 소재 전송]

또한 광화문 제작 시스템과 상암동의 제작 시스템, 아카이브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콘텐츠를 통합 검색 및 활용할 수 있으며, 광화문 CMS는 보도와 제작 모두 동일한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 향후 광화문 CMS와 제작 CMS의 모든 메타데이터 체계를 수용하고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채널A는 상암동 DDMC와 광화문 DMC에 저장돼 있는 소재 영상을 상호 전송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과 완전히 자동화된 제작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관리 플랫폼 전문 기업인 (주)제머나이소프트는 동영상, 이미지, 문서 등 디지털 미디어 자산의 생성, 보관, 수정, 배포, 폐기에 이르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체 개발한 미디어 자산 관리(Media Asset Management) 솔루션, 보도 정보 솔루션 등 미디어에 대한 기술력은 업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국, 케이블방송 사업자,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방송 콘텐츠 제작과 보도,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주)제머나이소프트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더욱 유연하고 고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